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姜泰圭

濟州 國際自由都市의 痲藥類 政策 研究

A Study on narcotics policy in Jeju, International Peace Island

2003年 8月

漢城大學校 國際大學院

國際痲藥學科

國際痲藥學專攻

高 光 彦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姜泰圭

濟州 國際自由都市의 痲藥類 政策 研究

A Study on narcotics policy in Jeju, International Peace Island

위 論文을 國際痲藥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 8月

漢城大學校 國際大學院

國際痲藥學科

國際痲藥學專攻

高 光 彦

高光彦의 國際麻藥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3年 8月

審査 委員長 이 태 운 

審査 委員 류 종 훈 

審査 委員 강 태 규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방법	3
II. 제주 평화의 섬 마약정책의 제반 요소	4
1.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	4
1) 세계 평화의 섬	4
2) 마약지수의 전망	5
2.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위해 요인들	8
3. 국제자유도시, 관광제주에서의 마약정책 전망	13
III. 통일한국의 마약정책 그리고 각국의 시각	14
1. 북한의 마약문제	15
2. 우리나라, 미국 및 일본의 대북시각	16
3. 핵무기 개발과 마약밀매	16
4. 북한의 변화	17
5. 미국의 시각	18
6. 일본의 시각	20
IV. 최근 불법마약류의 유통실태	21
1. 우리 나라의 마약류 범죄현황	21

1) 마약류 범죄현황	21
2) 각국의 마약류 범죄지수 현황	22
2. 최근 마약류 유통실태	23
1) 최근 유통실태	23
2) 마약류 생산 및 유통실태	24
3. 최근 마약류 국제적 동향	29
4. 마약류범죄 통제정책의 전환	30
5.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활동 증대 필요성	31
V. 결 론	33
참 고 문 헌	35
ABSTRACT	41

표 목 차

<표 1> 극동 지역 해상범죄('98 - '01)	7
-----------------------------------	---

그림 목차

[그림 1] 제주에서의 최근 5년간 마약지수	6
[그림 2] 최근 5년간 제주지역 범죄 발생 현황	11
[그림 3] 최근 5년간 해상에서의 범죄 발생 (03년 4월 현재)	12
[그림 4] 북한의 아편 생산량 추이('89 - '03)	25
[그림 5] 북한추정 메스암페타민의 국외 압류량 추이(일본/대만)	28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제주도는 지난 40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이미 제주도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세계화, 글로벌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거점도시로 개발하는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에 있다고 본다.

2001년에 이르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그 틀이 완성되었으며 이제 본격적인 동북아지역 발전의 전초기지건설에 중국과 일본과 경쟁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비록 중국과 일본에 비해 개발추진에 있어 후발적이기는 하지만 제주는 중국의 푸둥, 일본의 오키나와를 추월할 수 있는 지정학적, 환경적 강점이 있으며, 이제 정책의 보완과 전략적 실행만이 남은 과제이다.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이유에 근거하여 마약통제 정책은 한반도의 마약정책의 대표적 선도 모델로서 뿐만 아니라, “평화의 섬”에 걸맞는 정교한 틀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의 마약정책의 궁극적 모델이 될 수 있음을 간과 할 수 없다.

미국의 9.11 이후 한반도와 관련한 강대국들의 입김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세계주의아래 재편되고 있으며, 국가간 안보와 관련한 첨예한 이해관계에 따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새로운 판짜기에 편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한반도의 상황의 정치적 견해들은 국제정치 및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유독 마약통제정책에 있어서 다양한 분석과 제시에 대한 노력은 비록 데이터베이스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와 관련한 다양한 접근의 공론에 대한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실로, 제주도는 물론 우리나라보다 주변국에서 더욱 심각한 정도로 불법 시장이 확대되었고, 범죄네트워크의 크기와 자원이 양질의 과학적 방법으로 세련, 발전되고 있으며, 마약관련 범죄조직들은 국제적으로 복잡하고도 희귀한 전략적 동맹으로 까지 진입하고 있다.

글로벌화 자체가 마약류 통제정책과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현실은 국가간 공유한 문제일 뿐 아니라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 역시 시점에 맞추어 전략적 구도가 도출되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 새로운 틀은 현재까지의 통제정책의 틀, 즉, 세관, 경찰, 검찰 조직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스펙트럼으로 펼쳐질 수 있음을 예측하여야 한다고 본다.

저자는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가 향후 국제적인 마약범죄의 대처에 있어서 상당히 성숙되며 국제화된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새로운 틀이 될 수 있음을 전망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고민의 출발로서 가치를 두고자 한다.

비록 작은 논의의 시발일 수 있지만, 향후 다양한 해결방법과 다양한 전문가를 통한 의견의 전개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논의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상황과 구별될 수 있는,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에 부합되는 마약통제의 틀을 제시해 보고자하며, 국제자유도시의 안보적 전략을 분석해 보는 데 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이하 “평화의 섬”)의 향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자료를 예측하고 효과적인 대책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으로 그 범위를 정하였다.

2) 연구방법

본 논문은 평화의 섬으로서의 제주에 필요한 마약류 정책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국내외 유관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을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연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로 문헌조사적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국내에서의 마약류 정책에 관한 문헌고찰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내주재 외국마약관련기관 및 기타 유관단체 등에서 발간한 각종 연구자료 등을 위주로 하였다. 해외에서의 마약류 통제정책에 대한 문헌고찰은 유엔마약통제본부(UNDCP),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미국마약청(DEA) 등의 각종 자료를 참고하였다. 이 밖에도 국내외 문헌, 연구논문, 정기 비정기 간행물 등을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II. 제주 평화의 섬 마약정책의 제반 요소

1. 동북아 평화, 번영의 중심

1) 세계 평화의 섬

세계 평화의 섬의 개념은 1990년 초 한소 정상회담에서 시발된 자주적인 한반도 평화 전략의 모멘텀이 된 시점이며, 향후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 까지 포괄적이며 전략적 개념으로서 국운의 새로운 시발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시기적으로도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적 위상과 국민의 엔트로피가 상승한 시점의 연속성에 있기도 했다.

실로 가장 이상적인 “세계 평화의 섬”의 개념은 중립화 또는 비무장지대가 주변국의 협력 내지 국제적 보장을 통하여 조성되고 이를 기초로 적극적인 평화 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지역평화의 완충지대 형태로 추진되는 모형이다.

미국의 9.11 이후 한반도와 관련한 강대국들의 입김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세계주의아래 재편되고 있으며 국가간 안보와 관련한 첨예한 이해관계에 따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새로운 판짜기에 편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더우기 북핵문제 등으로 한반도의 상황은 더욱 더 제주의 평화의 섬

모델이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며 통일한국을 위한 중요한 징검다리가 되는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통일한국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게 될 것이고 한미동맹은 불가피하게 경제의 대상으로 인식될 것이다. 결국, 통일 한국의 우선 순위는 중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선린의 의지를 확인시킬 수 있는 평화의 섬이 되기도 할 것이다.

21세기는 전통적인 동맹에서 보다 해결하기 힘든 새로운 형태의 도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래식 국가간 협력에서부터 마약, 밀수, 해적, 난민 등 인근 국가간 이익이 되는 체제들을 통해 군비경쟁 등과 같은 잠재위협을 바로 “평화의 섬” 모델로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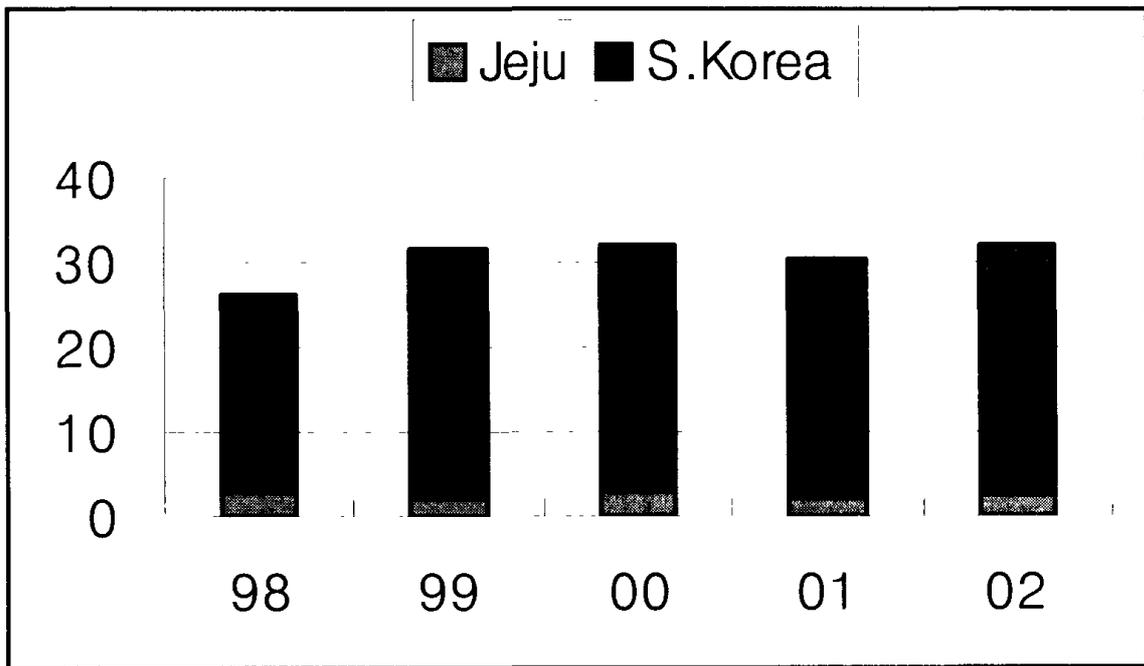
실천적 전개과정의 하나로서 금년 10월의 “제2회 제주평화포럼” 그리고 2004년까지의 평화센터 건립, (가칭)남북평화센터의 건립과 “세계평화의 섬” 지정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두번째로 경제적 면에서 “번영, 평화, 복지의 섬”으로서 자유무역항, 자유무역지대 및 국제물류기지 조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평화의 섬의 통합 모형이 목적이기도 하다.

2) 마약지수의 전망

[그림 1]에서와 같이 1998년에서 2002년까지의 인구 10만명 당 제주에서의 마약사범인구의 비율(이하 마약지수)과 한국 전체의 마약지수와 비교할 때 마약유통 또는 공급차단에서 성공적인 섬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국제 자유

도시로 진척됨에 따라 그 상황은 당장 불안한 변화로 전개될 수 있음은 쉽게 추측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개방형, 선진형 도시가 될 때 그 전망은 우려될 수 있는 정도의 잠재 위험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림 1] 제주에서의 최근 5년간 마약지수

<표 1> 극동 지역 해상범죄('98 - '01)

발생 지역	'98	'99	'00	'01
중국/마카오/홍콩	2	0	2	0
“HLA”지역	0	0	0	0
남중국해	5	3	9	4
베트남	0	2	0	8
대만	0	0	0	2
동중국해	0	0	1	2
통킨만	0	0	0	0
황해	0	0	0	0
파푸아뉴기니	3	0	0	1
솔로몬제도	0	1	2	0
동아시아 전체	99	167	233	160
세계 전체	202	300	469	335

2.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위해 요인들

제주도에서는 앞으로 사람, 상품 및 자본이동의 자유로운 보장은 물론 중앙정부로부터의 간섭과 규제가 최소화되는 이른바, “세계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도시”를 지향하므로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오키나와, 홍콩, 중국의 해남성, 상해의 푸둥지역 및 싱가포르 등은 모두 해양을 접하고 있으며, 해양에 인접해 있는 점들이 사람과 물류의 이동에 장점이 있지만 위협 또는 위해 요인들이 해상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 중 국제자유도시로서의 홍콩 및 싱가포르는 특히 경제성장의 지속과 더불어 중동국가로부터 원유 수입량에 의존함에 따라 해로의존도가 높은 해적의 빈번한 출몰이라 단지 해협 통과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연안국의 제한행위와 같은 위협 요인들을 들 수 있으며 제주의 경우는 동북아 해상교통의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으므로 더욱 “평화의 섬”으로서 자리잡음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위해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남사군도를 둘러싼 도서영유권 분쟁에 기인한 중국 대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에서와 같이 당사국 사이의 무력충돌 가능성, '95년 및 '96년의 중국 대만해협에서의 미사일 발사훈련과 같이 해양인접국 사이의 군사훈련들이 해상교통의 위해 요소로 볼 수 있다.

두번째로서, UN 해양법 협약이 연안국 영해 내에서의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Innocent Passage)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보호 및 자국의

안보상의 이유로 대형유조선, 군함 등과 같이 특정선박에 대하여 해당국이 사전통보제 또는 허가제를 도입할 경우는 해상교통이 제한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하루 선박 통행량이 600을 넘는 말라카 해협은 마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익부담요구를 주시해 볼 때, 우리(구체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같이 해협의존도가 높은 경우는 향후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 군도수역해로를 둘러싼 인도네시아 정부와 미국, 호주, 영국 정부 사이의 개방협상 등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

세번째로, 무력을 사용하여 절도 등의 범죄를 수행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저지르는 행위(이는 국제상공회의소 국제 해사국의 해적행위의 정의)에 의한 위협요인으로 평화의 섬 마약정책의 핵심우려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실로 1999년 아시아 경제위기 발생 후 해상범죄의 60%에 해당하는 연간 200건 이상이 동남아 해상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극동지역 또한 20건 이상으로 보고되지만, 보험료 등의 이유로 은폐되는 경우를 고려 할 때 마약 관련 해상범죄에 의한 위해 요인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마약밀매선 특유의 해로교란 행위는 해상교통의 또 다른 위해 요인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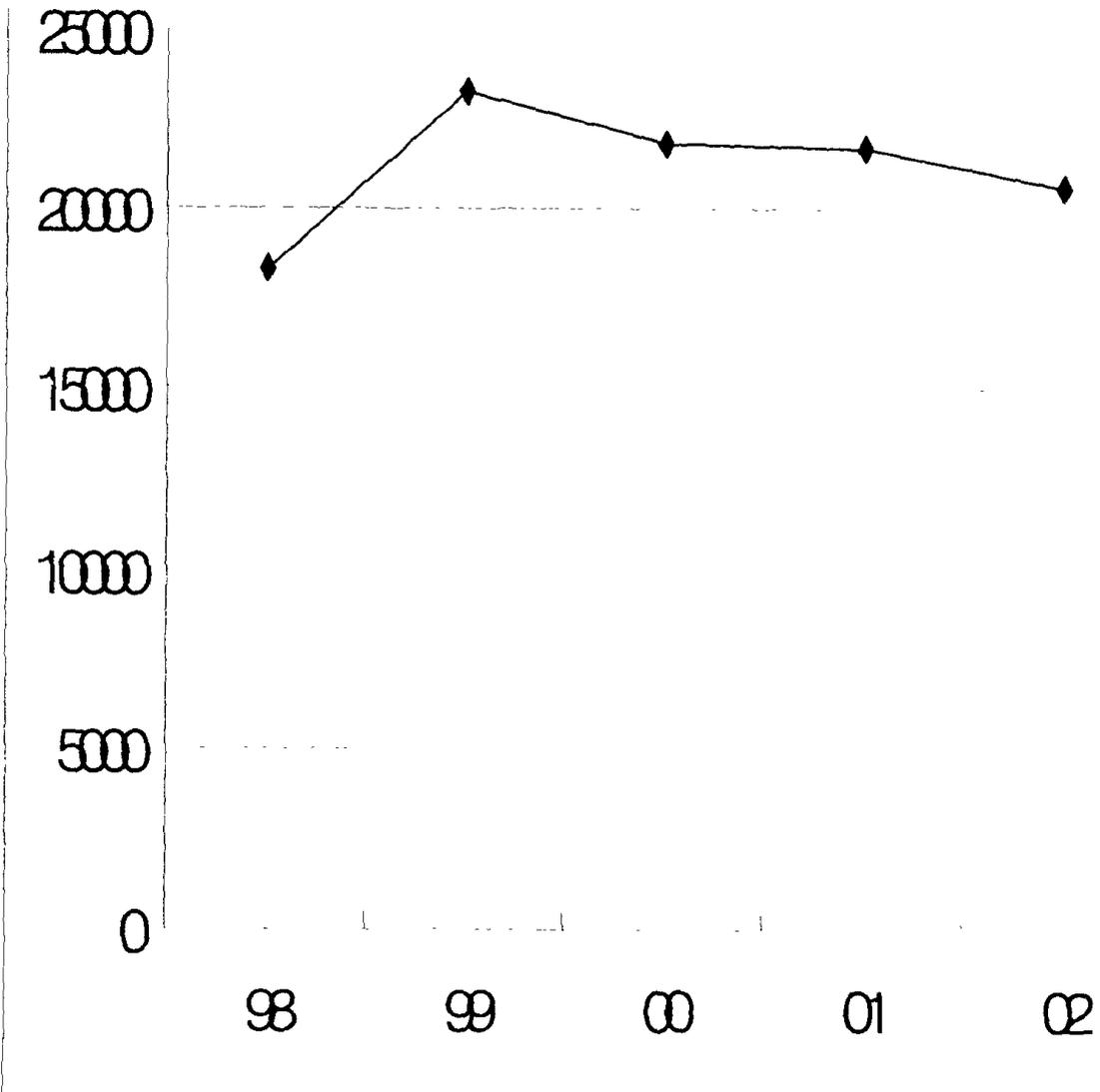
이상의 우려 요인 이외에도 제주의 경우에는 치안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홍콩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게 한 요인 중 하나가 지속적이며 일관된 양질의 공공서비스 부문과 법의 지배를 들 수가 있고 적절한 대우를 통한 우수한 공공인력의 확보에 있으며 가장 주목할 것은 비교적 신뢰할 만한 치안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홍콩의 모델이 최상은 아닐지라도 한반도 현 상황에서의 평화의 섬 모델로서는 차선의 가치 이상을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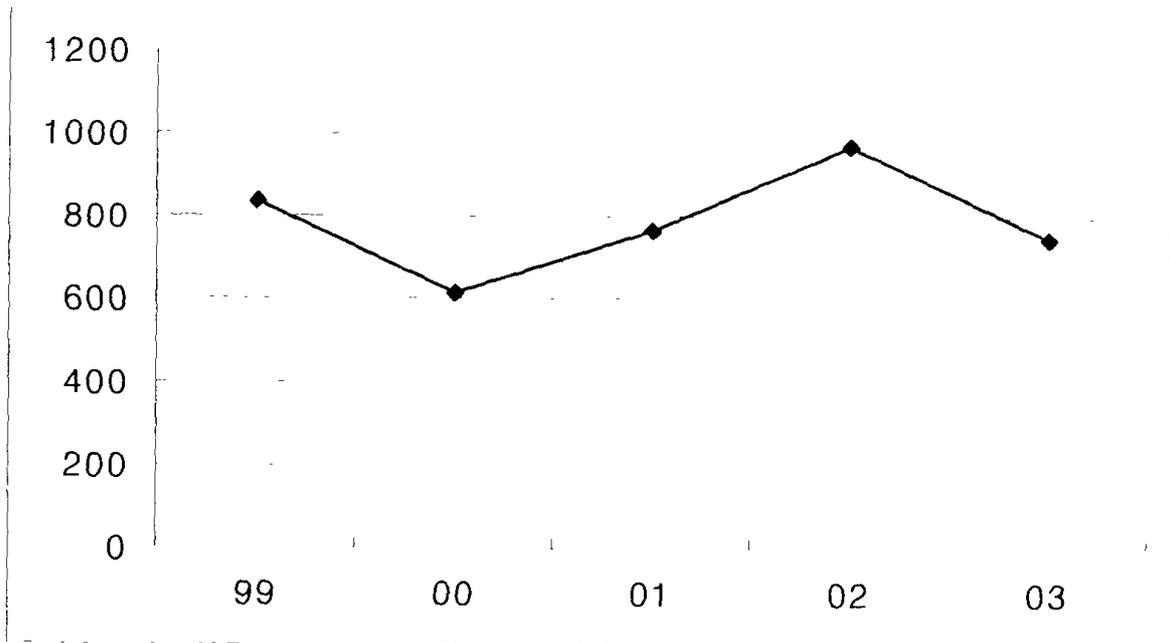
1997년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된 이후로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이는 상당한 전통의 영국식 경찰제도의 도입과 자체적인 발전을 통해서 마약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기도 하다.

우리 평화의 섬에서의 치안의 개념도 해양활동 보호, 해상테러 및 해적 행위, 마약을 포함한 해상 밀수 운반, 해난구조 등의 문제는 경찰의 임무이며 또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도 해상치안은 경찰력으로 해결하고 있다.

북미의 코스트 가드, 일본의 해상보안청, 싱가포르의 폴리스 코스트 가드, 말레이시아의 마린 폴리스 등이 이를 예시한다. 이는 평화의 섬 전략과도 부응되며, 현재 홍콩의 외곽을 중국군대 만여 명으로 외곽에 주둔하는 형식으로, 경찰의 치안을 돕고 있는 형식과 같은 방법대로, 제주 국제자유도시는 경찰력의 신장을 통하여 전시에는 군사적 전략과 대처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일 수 있으며, 해군력은 외곽 경비 또는 주둔의 개념으로 육지에 근거한 군사전략적 위치를 고수하는 것이 국제 정치적으로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자리하는 의지에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림 2] 최근 5년간 제주지역 범죄 발생 현황



[그림 3] 최근 5년간 해상에서의 범죄 발생 (03년 4월 현재)

3. 국제자유도시, 관광제주에서의 마약정책 전망

국제 자유도시개발에 따른 금융기관의 국제화 및 외국 금융기관의 입지에 따른 마약류 거래에 따른 자금의 유입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회가 필요 할 것이며 현금을 취급하는 비금융 사업체들의 이익 단체인 호텔협회, 여행업 협회 및 슬롯머신협회 등을 망라하는 협의기구를 발족하여 돈세탁 수법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수사 기구, 금융 감독 기구와 금융기관들간의 정보교환 채널을 마련하여 수시로 돈세탁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출입국자의 증대에 따른 통관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평화의 섬으로서 남북교류의 확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가능성, 북한산 마약류의 제주 내 밀반입 가능성의 증가 등을 고려해 볼 때 외국산 마약류의 제주 내 유통 억제는 국가정보원과 협력강화 등을 통하여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III. 통일한국의 마약정책 그리고 각국의 시각

미국의 9.11 이후 한반도와 관련한 강대국들의 입김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세계주의 아래 재편되고 있으며 국가간 안보와 관련한 첨예한 이해관계에 따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새로운 판짜기에 편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한반도의 상황의 정치적 견해들은 국제정치 및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유독 마약통제정책에 있어서 다양한 분석과 제시에 대한 노력은 데이터베이스의 부족에 근거한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와 관련한 다양한 접근의 공론에 대한 시도가 최근의 이슈로서 자리잡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보다 주변국에서 더욱 심각한 정도로 불법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범죄 네트워크의 크기는 물론 그 자원들이 양질의 과학적 방법으로 세련되어지고, 발전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복잡하고도 희귀한 전략적 동맹으로 진입되고 있다.

글로벌화 자체가 마약류 통제정책과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현실은 국가간 공유한 문제이며 기존의 통제정책의 틀, 즉, 세관, 경찰, 검찰 조직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스펙트럼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해결방법과 다양한 전문가를 통한 의견의 전개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논의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북한의 마약문제

미 국무부 국제마약법률집행사무국의 98년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 및 1999 “페리 보고서” 이래로 드디어 우리 국가정보원에서도 금년 4월 북한의 마약밀매 실태 및 확산동향 자료를 통해 약 50톤의 아편과 그 중에서 1억불 상당의 정제된 모르핀과 헤로인 밀매에 주력하고 있음과 그 판매지로서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최종으로 설정하며 이들 국가를 통한 한국판매도 상정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미국의 보고서 이전에 우리의 북한마약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었나를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로 우리는 주변강대국의 위협을 안고 살고 있으며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역시 정치적 결정만 내려지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상당히 독자적인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음도 미국의 94년 영변 폭격계획이 98년에서야 우리나라에 그 내용이 전달된 예로 보아 향후 한반도 상황이 긴박할 수록 지정학적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북한의 마약 문제도 이렇하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난 50년간 막대한 군사비 또는 정보비를 쏟아 붓고도 왜 아직 북한의 상황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 근거해 볼 때, 왜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평화의 섬” 전략이 중요한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우리나라, 미국 및 일본의 대북시각

불행히도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로 북한을 상대하는 태도의 변화는 최근 대통령 방미 이전의 우리나라 대북정책 변화 이외는 없다.

2002년 제네바합의 파기 이후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는 우리정부의 파기 인정을 막는 데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변화를 요구할 만큼 미국과 일본은 변화하지 않았고 군사대국화, 스타워즈계획의 실천, 국방비의 증액 및 포괄 핵실험금지조약 부결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3. 핵무기 개발과 마약밀매

아시아판 타임지는 금년 5월 부시행정부가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행위(마약밀매 등)와 핵개발 관련성을 조사한다고 했다.

북한의 양귀비 재배와 마약의 해외 밀매에 관여한 탈북자들의 증언 등에 근거하여 북한의 경제제재를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정작 생산량 추정에 대한 북한의 헤로인 생산량과 비교할 때, 북한당국은 의료용 마약류 생산량은 10분의 1 정도로 보고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국가주도 또는 일부 군부조직이 마약밀매를 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최근 북한의 경화 부족은 마약밀매를 통한 외화 확보필요성도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이 세계주도국가로부터 거대한 범죄집단으로 판단되는 현 상황에서의 남북한간 직접적 마약문제의 해결방안은 분명한 제약이며 공론화 하는 과정에 우선 순위의 제약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경직된 한반도 상황의 해법은 바로 동북아 전략적 위치에 있는 제주 “평화의 섬” 추진을 통하여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 군비경쟁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의 실타래뿐만 아니라 주요 해결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궁극적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4. 북한의 변화

분명 북한은 1984년부터 부업의 허가 등으로 경제구조의 변화를 시작 했 으며, 국제자본의 접근방법도 변화였고 외교의 대상도 제3세계에서 미국, 유럽, 일본, 우리나라로 바뀌고 있다.

더욱이 반복된 식량난은 실제로 북한을 변화시켜 기계화 농업에서 노동집약적 농업으로 바뀌었고(기계의 부품 부족으로) 이러한 변화는 다분히 타의적 변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변화는 그들 자신의 기준과 주권에 따라 변하고 있으며, 중국과 소련조차도 북한을 통제하려 한 시도가 뚜렷이 성공한 예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미국의 시각

1987년 KAL 858기 사건 이후 '국제테러지원국'으로 계속 규정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와 함께 미국의 강경한 대외정책 구사로 인해 미·북간 대화의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우리나라의 처지로서는 남북관계의 과급적 악화 등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중점적으로 기울여야 하는 단계에 와있다.

미국으로서는 자국 및 자국 주도 세계질서에 대한 충격을 “세계주의”로 국제적 지도력의 유지를 도모하고 있으며, 현재 그 결과는 적극적인 반테러전쟁으로 나타나고 있고 후속으로 반마약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주지의 추세처럼, 주요국가들을 자국 중심의 국제 행동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결속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처럼 반테러 국제협조체제가 각국의 국익에 기초하여 구축되었다는 사실은 향후 반마약 정책 주도에 따라 국제협조의 향방도 결정될 것임을 시사한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의 논문 “2002-2003년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을 미국의 대북한 시각의 하나로 간주할 때, 前 탈레반 보안장교가 북한인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지역 군대에게 화학무기 사용법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의 언급 및 한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 정부는 보도제한 및 공식 논평을 제한한 사실을 지적했다. 실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북한제 무기를 노획했고, 평양과 카불간의 전화통화를 추적하여 북한의 우려를 강조한 바 있다.

정작 미국의 관심은 북한개입의 사실여부 또는 가능성보다는 그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반응을 주목했다고 본다. 우리 정부는 햇볕정책을 통해 우리 스스로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는 파트너를 찾으려고 했고 미국의 생각은 북한 정부는 아직 미국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방식으로 한국인들의 희망을 이용해서 한국과 미국간의 군사동맹을 약화시키는 노력을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자주의지로 우리 수반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공동 성명 하는 시점에 대하여 미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음에 대해 우려했다.

성명내용에서 1972년의 ABM 조약(탄도미사일 방어망 제한 조약)을 “전략적 안정의 礎石(초석)”이라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불편해 했다. 부시 대통령의 국가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구상에 대립하는 이 ABM 조약은, NMD(국가미사일 방어망)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미국은 한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미국에 대항하는 상황으로 해석하였다.

워싱턴 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신뢰성에 의문과 회의를 토로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한국과 미국간의 마찰은 9.11 사태 이후 현저하게 증대되었고, 그 대부분의 의견 차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북한 정책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고, 우리의 독자적 무기구입 및 개발(중거리 미사일, 잠수함 추가 보유, 이지스급 구축함, 수륙양용 수송선, 함정용 공격 헬리콥터, 공중급유기 구입 등)에 대하여 미국의 시각은 “북한 이후(통일 이후)의 안보환경”에 대비, 한반도의 범위를 넘는 작전능력 보유를 위해 전력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결국 미국은 우리에게 2001년에 미사일기술통제협정(MTCR)에 강제성이 높은 가입을 하게 하였다. 우리의 안보전략에 대한 미국의 제약이 이리할

진데, 북한 또는 통일한국의 마약관련 정책연구 및 정보의 분석, 추진, 평가, 전망 등이 상당히 미국위주의 전략적 틀 속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따르모 더욱 더 “제주 평화의 섬” 추진 및 실행이 절실하다 하겠다.

6. 일본의 시각

일본은 9.11 이후 반테러 지원법안 통과 등 발 빠른 대응을 보였고, 일본 자위대 전투병력의 해외파견은 장차 일본의 국제역할 및 지역 안보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보고 있으며, 독자적인 첩보위성의 가동으로 한반도 상황을 직접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북한위협론에 근거하여 군사동맹의 강화와 군비증강의 호시기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북정책에서 탄력적 대응에서 압박적 대응으로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 미국, 일본의 동맹체제 또는 안보협력은 냉전시대의 북한, 중국, 러시아의 관계 복원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러시아, 일본, 홍콩 및 중국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물류벨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과 지정학적 근접성을 감안하여 안보 및 경제분야의 국제협력은 물론 마약을 포함한 국제공조로서 동북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마스타 키 역할로서의 평화의 섬이 기대된다.

IV. 최근 불법마약류의 유통실태

1. 우리 나라의 마약류 범죄현황

1) 마약류 범죄현황

가. 압수량 추세

국내마약류 유통경향은 해방후 50년대는 아편, 60년대는 아편중독의 치료제로 메사돈(METHADONE)이, 70년대는 대마초, 80년대는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속칭 히로뽕), 90년대는 메스암페타민이 주종을 이루면서 세계화경향과 함께 헤로인, 코케인, 엑스터시(Ecstasy:MDMA)등 외국에서 새로운 신종마약이 유입되면서 다양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의하면, 주요 마약류 압수량은 '96년도 이후 연평균 82Kg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462.3Kg이 압수 전년대비 154.4%나 증가하였으며 2001년도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량은 총 162.4Kg으로 전년(97.6Kg)대비 66.4%나 증가하였고, 특히 주종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 밀반입량은 151.9Kg으로 전년대비 226.7% 대폭 증가하는 한편, 헤로인도 전년대비 68.4%나 증가한 550g이 밀반입되고 있다.

나. 마약류 사범의 추세

2001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총 10,102명으로 2000년 10,304명 대비 2%감소하였으나, 1999년 이후 3년 연속 마약류 사범이 1만 명을 넘고 있으며) 마약사범이 1만 명을 넘는다는 것은 마약지수가 20(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의수)을 넘었다는 표현을 할 수 있다. 또한 마약지수 20은 마약사용의 확산 방지를 위한 통제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상징적 계수이기도 하다.

최근 각종마약이 일반시민, 농어촌까지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 마약류 사용인구가 최근 30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마약류 사범가운데 그 폐해성이 가장 심각한 향정 (메스암페타민:필로폰)사범이 전체 마약류 사범의78.8% 차지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2002년 10월 기준, 우리국민 230명중 1명이 마약과 연관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선진국의 예와 비교할 때 마약지수가 20을 넘으면 확산 가속도가 붙고 처벌과 치료를 위한 마약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고 한다.

2) 각국의 마약류 범죄지수 현황

마약범죄지수(또는 마약류 범죄율: 이하 범죄지수라 한다)가 역치(threshold)를 통과하면 투약자 계층이나 마약의 종류, 공급 조직 등 여러 측면에서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

그 한 예로서, 2001년 검찰에 적발된 마약사범은 1만102명, '99년부터 3년째 1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1980년 743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20년

새 14배가 늘어난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투약자 계층의 다양화, 마약사용자는 70, 80년대엔 유흥업 종사자나 일부연예인들이 주요 사용자로 인식되다가, 근년에 와서는 마약류가 학생, 회사원, 주부, 교수, 정치인 등 상류층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본다.

최근엔 종교인까지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례로 대표될 수 있다. 또 히로뽕과 대마초가 주종을 이루던 과거와 달리 신종마약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며 2년 전 처음 선보인 중국산 펜플루라민은 2002년 현재, 25만6,752정이 적발됐고 2001년 등장한 엑스터시(MDMA)도 대학생등 고학력 계층의 중심으로 2002년 현재 8,728종이 압수되었다.

2. 최근 마약류 유통실태

1) 최근 유통실태

글로벌화 되어 가는 국제환경에 따라 세계마약남용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여 UNDCP에 따르면 2001년 현재 1억 8천명으로 공식 집계 되고 있으며 국제밀매규모는 연간 미화 5천억불로 그 중 코카인이 30%인 1,500억불을 점유하고 있다.

주생산지는 헤로인과 몰핀의 원료가 되는 아편은 동남아에 아프가니스탄, 이란, 파키스탄 접경지인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서남아의 미얀마, 태국, 라오스의 황금의 초생달지역(Golden Crescent) 등에서 중앙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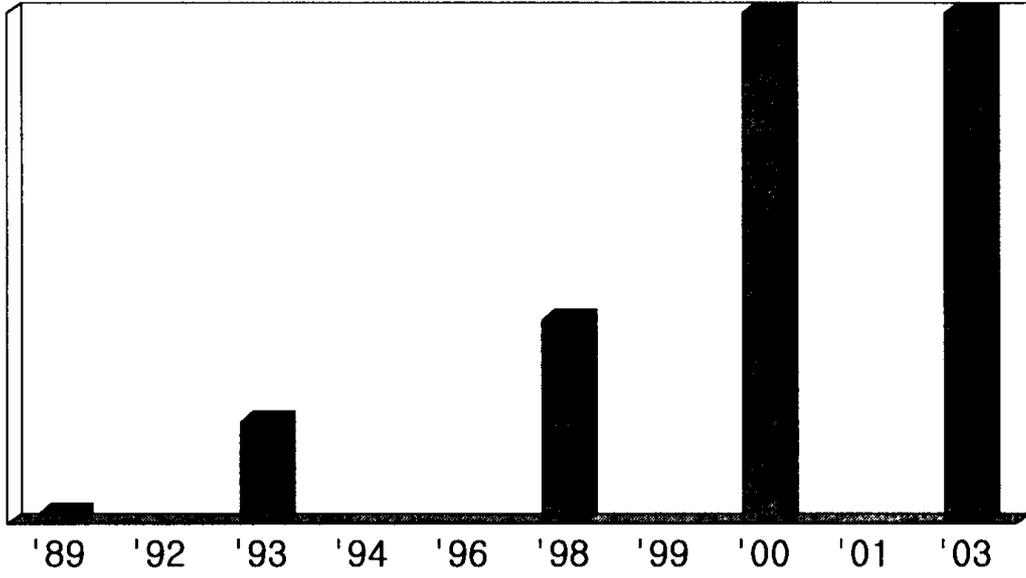
아프리카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소비지도 미국, 서구에서 중국, 동구, 동남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2) 마약류 생산 및 유통실태

가. 대마(Cannabis)

대마는 지역·인종에 관계없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환각제로 아메리카(미국, 캐나다, 브라질, 자마이카) 및 인도, 아프리카, 중동을 포함한 온대기후에서 생산되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용되고 있으며 마리화나, 해쉬쉬, 대마형태로 가공 밀매되고 있다.

대마 최대생산 밀매국가는 콜롬비아·멕시코로서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밀수출량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재배량은 감소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세계 총 수요 대부분을 공급 밀매하여 왔다. 콜롬비아는 2000년 대마경작지가 5,000 헥타르에 4000톤에 이르고 있으며 멕시코는 3,900 헥타르에 7000톤 가량을 생산하여 세계시장으로 밀수출하고 있다.



[그림 4] 북한의 아편 생산량 추이('89 - '03)

나. 아편

앵속의 주요불법재배지역은 미얀마, 라오스, 태국을 중심으로 한 소위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지역의 소위 “황금의 초생달지역(Golden Crescent)”, 인도, 베트남, 중국, 북한, 레바논, 중남미의 멕시코, 콜롬비아, 중앙아시아에서 생산된다.

2000년 아편생산량, 아프가니스탄 3,656톤, 미얀마 1,085톤, 라오스 210톤, 파키스탄 11톤, 태국6톤, 멕시코 25톤이다.

더욱이, 북한은 아편생산량의 증가와 해외 불법판매에 대한 국제사회에 우려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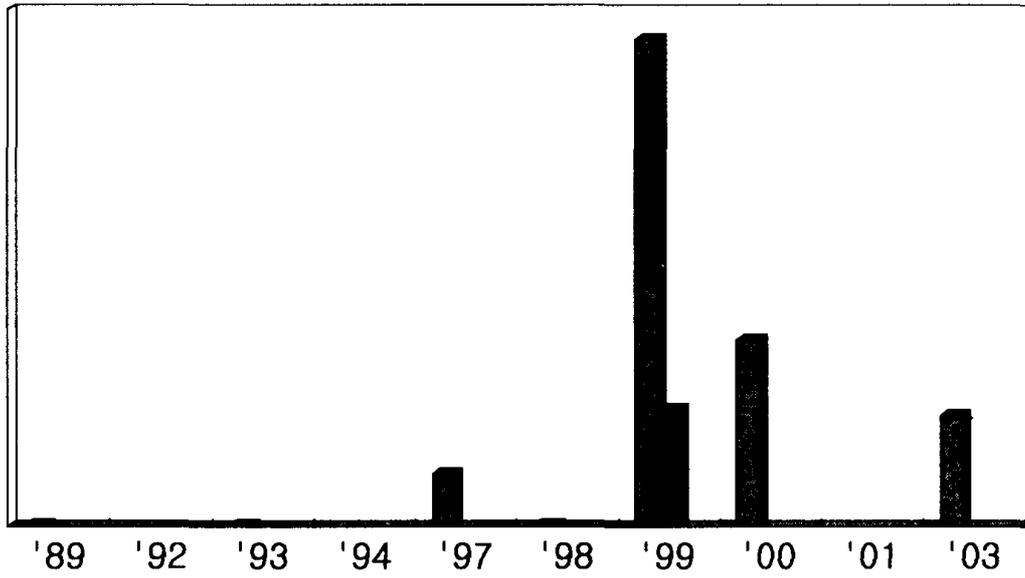
다. 헤로인

헤로인은 동남아 황금의 삼각지대, 서남아 황금의 초생달지역 그리고 중국, 북한, 중남미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특히 황금의 삼각지대 생산 헤로인의 80%는 태국, 중국, 홍콩, 대만, 이집트, 캄보디아, 체코 등을 경유하여 미주, 유럽지역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경유 아시아 인도네시아, 호주로 반입되며 나머지 20%는 미얀마, 태국 등에서 소비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캄보디아,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 미주로 반출되고 있다. 북한에서의 생산도 아편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가 우려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필로폰(philopon)

필로폰은 우리나라, 중국, 일본, 필리핀, 대만, 북한 등에서 생산되어 아시아, 미주지역에서 남용되고 있다. 필로폰은 미국에서는 아이스, 일본에서는 각성제, 필리핀은 샤부, 대만은 아미타민으로 통칭된다. 종전 동북아 중심에서 각성제, 필리핀은 샤부, 대만은 아미타민으로 통칭된다. 종전 동북아 중심에서 최근에는 독일, 영국 등의 유럽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유엔마약회의, 98유엔특별총회에서 메스암페타민 불법거래문제를 주요독립의제보다를 정도로 국제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향후 동북아지역의 주종 마약류이던 필로폰이 21세기 주 남용 마약류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는 필로폰에 카페인을 첨가하여 만든 정제형 필로폰 '야바(YABA)'가 생산 남용되고 있어 해외 여행객을 통한 국내유입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는 1995년 대홍수 이래로 아편경작지의 감소로 합성마약으로서의 메스암페타민의 생산량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고있다[그림 5].



[그림 5] 북한추정 메스암페타민의 국외 압류량 추이(일본/대만)

마. 코카인

코카인은 볼리비아, 페루, 칠레 등지의 고지대에서 자라는 코카나무의 잎에서 추출되는 코카인 알칼로이드를 농축, 결정시킨 천연마약으로 코카나무는 주로 남미의 안데스 산맥 주변지역에서 재배되며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 안데스 국가들이 주요 코카인 생산지로서 세계 코카인 공급의 98%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세계 코카인 생산량의 3/4가 콜롬비아산이며 또한 콜롬비아가 최대 코카인 생산국가이다. 북한에서는 국경에서의 외교행낭을 통한 밀반입 경력이 있었다.

3. 최근 마약류 국제적 동향

최근에 사용사례를 보면 기존의 필로폰, 대마초등의 약물에서 L.S.D, 야바, 엑스터시 등 신종마약사범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다양한 색상과 형태로 국내에 밀반입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정제형 히로뽕인 야바와 음료수에 타 마시는 물뽕(GHB), 양상추 형태의 케트(KHAT)등도 값이 싼 것을 앞세워 전국 유흥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자유무역도시로서의 제주에서도 우려될 수 있는 유형으로 생각되며, 평화의 섬으로서 공급억제 및 수요억제 전략을 다루고 집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인력 구성에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4. 마약류범죄 통제정책의 전환

마약류범죄의 통제대책은 마약류 공급과 수요의 차단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대책이 강구되어 왔다. 우리 나라의 마약류범죄에 대한 대책은 마약류의 제조, 밀매, 밀수사범 뿐만 아니라 단순 남용 자에 대하여도 단속과 처벌에만 의존하여 왔고, 마약류 남용문제에 대한 예방과 교육, 치료와 재활의 부분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마약류의 제조 및 공급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마약류의 남용자에 대하여는 치료나 재활에 더욱 중점을 두는 마약류범죄 통제대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투약자로서 자수 또는 재활의 의지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치료보호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마약투약사범에 대한 ‘치료보호부 집행유예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재활의지가 없는 자는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치료보호부 기소유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주의 정신병원 마약중독치료소를 마약사범 전문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제주지역의 독립 집행기관과 구치소에 수용된 마약사범들의 치료기관 이용이 용이하도록 전담 호송체제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초기단계의 연루자들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관심이 중요할 것이다. 현재 마약중독자에 대한 중독자 치료보호기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제주 평화의 섬은 높은 복지구현도에 걸맞게 실버타운 조성, 재활기관의 육성, 지역특화의 역할에 부합될 것이다.

10대 청소년시기에 본드를 흡입한 사람들이 20대에 대마초를 거쳐 필로폰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치료, 재활, 예방이란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환각물질중독 청소년에 대한 치료, 상담지원 활동들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겸하여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민간단체 활용 역시 자유도시 내에서 독립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오남용 예방에 관한 내용들이 청소년 교과목에 접목시키는 교육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활동 증대 필요성

마약류의 문제는 이미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국가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는 깊은 인식 하에, 보다 긴밀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처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국가간 신속한 정보교환과 폭넓은 수사공조를 포함한 적극적인 지역간 협력활동이 요구된다. 나아가 국제마약거래에 관한 정보가 적시에 수집·배포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약류범죄의 국제성을 상기하면 마약류 공급조직의 추적에 있어서 해외정보수집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국가정보생산, 밀수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전파에 주력하고 있으나 완벽한 대비를 위하여는 지속적 분발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국정원은 정보수집 및 분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며, 특히 정보분야의 정예요원들을 세계요소 요소에 파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마약조직의 적발 및

추적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다. 더구나 출입국자의 급증에 따른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남북한교류 확대로 북한산 마약류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으므로 북한지역에 대한 국정원의 정보수집활동에 독립적인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국정원의 해외 정보수집활동을 증대와 더불어, 각급 수사기관과 국정원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제주 평화의 섬에서 독자적인 지역체제와 국가기관들이 협력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우리의 마약정책결정과정은 주변정세의 역동적 상황에 의해 제약되고 있지만 전략적 사고와 실천에 따라 통일상황에 대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통일정책의 기반이 되는 전략이 모색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 제주는 신냉전 또는 주변 강대국의 군비경쟁을 줄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중의 하나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는 한반도적인 가치와 더불어 평화의 섬의 가치를 통하여 국제적 도시로 자리하여야 할 이유가 바로 우리의 국가안보와 연결되는 문제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제주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실천하는 제주는 이익집단, 대학교수, 분야별 전문가, 언론, NGO, 국제동향에 따른 다원적 정책결정과정의 요구되며 또한 더욱 더 개방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전문가의 결집과 수평적 교류를 심화 발전시켜 긴장 속 한반도를 평화적 공간으로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1989년 이래로 공급, 생산억제 성공에서와 같이 통제정책의 가시적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2000년부터의 ATS계열의 알약등장에 따른 유통억제에 더욱 전략적인 초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이는 제주 평화의 섬을 기축으로 한 통일한국의 마약정책과 연관된다고 생각한다.

평화의 섬 제주에는 비범죄화 정책이 병행될 것이 명확해 짐으로 자유도시로서의 탄력적이며 독립적인 마약단속국과 FDA 와 같은 양두체제의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도시에서의 계층간, 세대간 갈등은 더욱 다양할 것이며, 이에 따른 청소년 및 젊은 세대를 위한 예방교육의 다양한 데이터 베이스 또한 중요할 것이다. 마약류의 유해성 근거를 과학적으로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부모교육은 물론 상주 외국인들의 성향이 부분적으로 마약류에 관대한 계층일 수 있으므로 직업별, 국적별, 거주지역별 전략 또한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기반으로 평화의 섬에서의 마약정책은 오히려 한발 앞선 정책의 모형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조직폭력집단들이 국제조직과 연계되고 있고 간접적으로 북한으로부터의 마약 유입이 가시화 되고 확산의 가속도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으므로 한.중.일 협력체제 창설로 자유도시의 국제적 전략은 물론, 한반도 측면에서의 전략적 사고가 이루어 져야 할 시기이다.

마약류 예비 사용자 群이 최우선 보호방어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마약류 예방 및 방지 전략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보완 또는 전략적 지원을 통해 분산된 분야를 통합할 수 있는 전문가의 배출이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평화의 섬으로서의 제주는 외부 전문가 그룹이 이주하여 자유무역도시의 일꾼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발전적 개방성이 아울러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단행본>

경찰청, 「경찰백서」, (1999-2002).

관세청, 「관세연감」, (1998-2001).

국가정보원, 「21C 새로운 위협 국제범죄의 실체와 대응」, 국제범죄자료집, 1999.

국제문제조사연구소, 「국제 마약 확산 실태 관련 해외평론」, 1997. 2.

김부찬, 동북아 해로에 있어서 제주도의 전략적 가치, 제9회 합상토론회 2002. 5.

김우상, 해군기지건설은 국제자유도시의 맥락에 의해, 제9회 합상토론회 2002. 5.

김철민, 「마약류관련법 연구」, 연수교재, 경찰수사 보안연수소, 2002.

대검찰청, 「국가마약퇴치 전략」, 2001.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1996-2002)

문효남, 「검찰의 마약류 사범 처리방안」, 99년 마약류치료 및 상담 심포지엄자료, 1999.

민성길 저, 「약물남용」, 중앙문화사, 1998.

법무부, 「법무연감」, 1998.

유영구, 페리보고서, 한반도 지각변동의 첫걸음, 월간 에머지, 1999. 10.

- 이서항, 국제자유도시의 안전보장, 제9회 함상토론회, 2002. 5.
- 장석만, 타자로서의 북한, 월간 에머지, 1999.12.
- 제주도, 2002 Jeju Peace Forum, 2002. 4.
- 제주도의회,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대응방안, 정책세미나, 2002. 11.
- 제주도정보화담당관실, 2003 주요행정총람, 2003. 4.
-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가이드, 2002. 12.
-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003. 3.
- 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 통계연보, 2002.
- 조병인, 「마약류단속을 위한 국제협력」, 수사연구 통권222호, 수사연구사, 2002. 4.
- 지방경찰청, 지방경찰청 연보, 2002.
- 황장엽, 조국통일의 문제와 관련한 논점-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월간 에머지, 2002. 10.
- 홍규덕, 반미와 용미: 21세기 생존전략, 월간 에머지, 2000. 11.
- Moises Naim, 글로벌화에 따른 5가지 전쟁, 월간 에머지, 2003. 4.

<논문/연구보고서>

- 강태규, 통일한국의 마약정책, 2003 마약퇴치 심포지움, 2003. 6.
- 고성균, “한국의 마약류 통제정책에 대한 연구”,한성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권영대, “국제 마약류 밀수 단속 방안”, 경북대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김석재, “우리나라 영화의 마약류소재 표현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종기, “국제마약류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고려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김준래, “국제 스포츠 약물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박영기, “마약류 범죄에 관한 형사정책적 연구”, 경기행정논집 11, 1997.

민성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박건호,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신의기, “국제법상 마약류 규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유 영옥, 남북한 이질화 감소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997.4.

윤성태, “마약류 통제를 위한 국제협력관계 고찰”, 치안정책연구, 1997. 8.

윤종조,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이근후, “약물남용자의 치료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이병기, “마약류 사범의 실태 및 대책”,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봄.

- 이정수 외, “메스암페타민 사범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89.
- 이현경, “한국 마약류 사범의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정선태, “마약류 사범의 실태와 대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조병인, “마약류 불법유통과 규제전략”, 한성대학교, 2002년 춘계학술회의 논문, 2002.
- 조성권, “북한 마약밀매의 실태와 대응방안”, 정책연구, 1999. 5.
- 조은석외,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형사정책연구원, 2001.
- 차혁수, “마약류 유통자본의 이동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최광명, “마약류범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최진욱, “마약류범죄의 최근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국내체류 외국인의 마약류범죄를 포함하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8.
- 황진수, “한국 마약류 퇴치 정책에 관한 연구”, 마약범죄학회보, 1998.6.

<기타자료>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마약류대책회의, 2002. 4. 18

대검찰청, 국가마약퇴치전략(National drug control strategy), (마약퇴치 관
계관 국제협력회의 : ADLOMICO),1999.6.

마약범죄연구(계간), 제5호, 2000. 1.

검찰자료, “대규모 북한산 메스암페타민 한국 경유 일본 밀수출 사건”, 1999,
4. 15.

국내일간신문, 1998-2003. 4.

< 인터넷 사이트 >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npa.go.kr>)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국가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is.go.kr>)

국립치료감호소 홈페이지(<http://www.forencure.go.kr>)

National Drug Strategy Network 홈페이지(<http://www.ndsn.org>)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po.go.kr>)

美마약국 홈페이지(<http://www.usdoj.gov/dea>)

美중앙정보부 홈페이지(<http://www.cia.gov>)

美연방수사국 홈페이지(<http://www.fbi.gov>)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연수원 홈페이지(<http://www.lrti.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ba.go.k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c.re.kr>)

한국인터넷 정보센터(<http://www.nic.or.kr>)

워싱턴 포스트(<http://www.washingtonpost.com>)

마이니찌 신문(<http://www.mainichi.co.jp>)

ABSTRACT

A Study on Narcotics Policy in Jeju, International Peace Island

Kwang-eun Koh

Department of International Narcotics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Hansung University

Directed by Prof. Tae-kyu Kang

The process of drug policy decision has been restricted by the changes of the surrounding world. Constructing all the possible based data, certain strategy that for the preparation of unifying policy is required to be observed. Jeju could be one of the solutions that help for reducing arms race of powerful countries surrounding.

Therefore the reason why Jeju should be recognized, as international city through worthy of Peace Island is the answer to explain for the any problems related national security.

In pursuits of an International Freedom City, Jeju is needed for diverse process in deciding policy according to groups for profits, professors, specialists, press, DEA in different field.

It should be the kind of policy that pursues Korean peninsula to be a powerful place having stable exchanges developed and gathering of specialists in different field, too.

Not being satisfied with visible success likes that of success in controlling supplies and demands since 1989, there must be proceeding strategy focused on controlled supplies corresponding to the emerge of tablets in amphetamine-type stimulants(ATS) and that is quite closely related to the drug policy of United Korea based on peace in Jeju.

The need of these two factors, independent drug controlled country or the system like FDA should go for consideration as non-criminal policy is getting firmed to be carrying out together in Jeju, Island of Peace.

The conflict between social classes and generations is expected to turn out in various way and different materials for education in purpose of protecting these facts in advance for the people specially young is also found to be regarded important. Such harmful factors founded in drugs should be explained with scientifically evidences supported. Like to those foreigners who are resident in Jeju International City drug uses might be rather open to them so the strategy for different groups of people in terms of their working, nationality, resident area as well as parental education are emphasized to be discussed further. Followed by these expectations the drug policy recognized to be practiced in a model that would move one step forward.

Accepting drugs from North Korea has been already started rapidly and knowing that criminal organizations in Korea is related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ternational strategy systemized organization with Korea, China is in right time to be practiced. Also it is the time for specialists who could support by preventing drug uses.

There must be some remedy for preventing those who are prospected to use drugs and this is the right time for many specialists to come out who could unify all different fields for protecting drugs by supporting educational organization. Jeju is expected to grow to be a Free Trade City, which would open for such progressive result in any possible to bring out by prospective professional group of people's moving to this place, Island of Peace.

감사의 글

불초한 제가 지난 3년간 한성대 대학원에 입학하여 새로운 전문분야를 터득해 오면서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 본의 아닌 염려와 심려를 끼쳐 드렸고 이제 본 논문을 제출함에 있어 그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게 도리일 듯 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방경찰이라는 현직에 임하면서 서울에 올라 와 들어야 하는 강의는 주위의 여러분의 큰 도움이 없었다면 도무지 오르지 못할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국내 최초로 개설된 이 과정에 제주도에서는 최초이면서 유일하게 석사학위를 득 하게 된다는 개인적인 설레임은 하루도 일과 학업을 중단할 수 없는 많은 용기의 시발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본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논문을 제출함에 있어 만 가지의 신념이 떠오릅니다. 숙직과 강의일이 겹치면 동료에게 숙직을 부탁하고 부랴부랴 비행기를 탔던 일, 밤새 수사를 진행하고 지친 몸을 추스려 비행기에 올라 그냥 쓰러져 잠에 빠졌던 일, 서울로 출장을 갔다가 강의실로 직행했던 일 등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저의 뇌리를 스쳐 갑니다.

더우기 강태규 교수님은 본 논문을 지도함에 있어 제가 서울로 자주 상경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일부러 제주도로 몇 번씩 내려 오셔서 많은 도움의 말씀과 격려를 해 주시던 모습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될 수 있으면 강의에 빠지지 않도록 늘 배려해 주신 제주지방경찰청 김영석. 양동인. 김충규. 한기민 전, 수사과장님과 강문호 보안과장님 그리고 강력계에 근무하는 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송양화. 고성욱. 오영기 전, 계장님, 정동원, 이신철 마약 계장님께도 이제야 빛을 갚게 됐습니다 라고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마약범죄학과 교수님, 차혁수 총무님 과 여러 동료학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친 나를 늘 사랑과 격려로 일관해준 사랑하는 아내와 바쁜 아빠를 끝까지 믿고 따라 준 원혁, 민혁 두 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여러 선, 후배 경찰들에게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